

VII. 아스티아게스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이다¹⁾

아스티아게스는 에스더서의 저자가 쓴 '아하수에로'라는 미디어의 칭호로도 명백히 불리고 있다.

A. '아하수에로'는 미디어식 이름이다

'아하수에로'라는 칭호는 에스더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저자는 '아하수에로'가 그저 미디어의 칭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적인 진술로 실제 왕을 동일시 하고 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에티오피아)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 1:1.

B. 다니엘서와 일치하는 고관의 수

다니엘 6:1-2에 따르면 미디어사람 다리오는 그의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임명했고 다니엘은 다니엘은 총리들 중 한명이었다.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보다시피 아스티아게스는 바빌론에 120개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었다(다니엘 6:1). 기원전 573년, 그의 3년째에 그 구역들은 7개 증가했다(에스더 1:1). 이 일곱 개의 구역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수에로는 세 번째 해에 180일간의 연회에서 미디어와 페르시아 군대를 모두 거느렸다. 이는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전에 미디어의 왕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에스더 1:3에서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위에 있는 지제삼 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C. 이 시기 미디어의 수도는 수산이었다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의 생애에 대한 사건이 수산(수사)에서 일어났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에스더 1:2. 성경의 수산은 페르시아 만에서 북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티그리스 동쪽의 스텝지대 국가인 남부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연속이다. 루리스탄의 산들은 수사의 북쪽에서 시작하지만, 도시 자체는 자갈과 진흙의 낮은 돌출부 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레 정상적인 홍수들보다 높게 솟아 있지만 캄강(성서의 을래, 다니엘 8:2)의 충적평야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

안산의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정복들을 시작했을 때, 수사의 위치는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고레스의 후계자 밑에서 수사는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그리고 크테시폰은 왕의 도시가 되는 영광을 나누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궁중 하인으로서 수사에 있었는데, 그 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읍의 일에 관한 불안한 보고를 받았다(느헤미야 2:1).

투델라의 벤자민(서기 11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은 다니엘의 무덤을 수사의 북쪽 모스크에 배치한다. 다니엘 8:2에서 그 예언가는 환상을 본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래 강변에서 이니라"

1) 유진 폴스티히, [포로기 및 회복기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3장 pp62-6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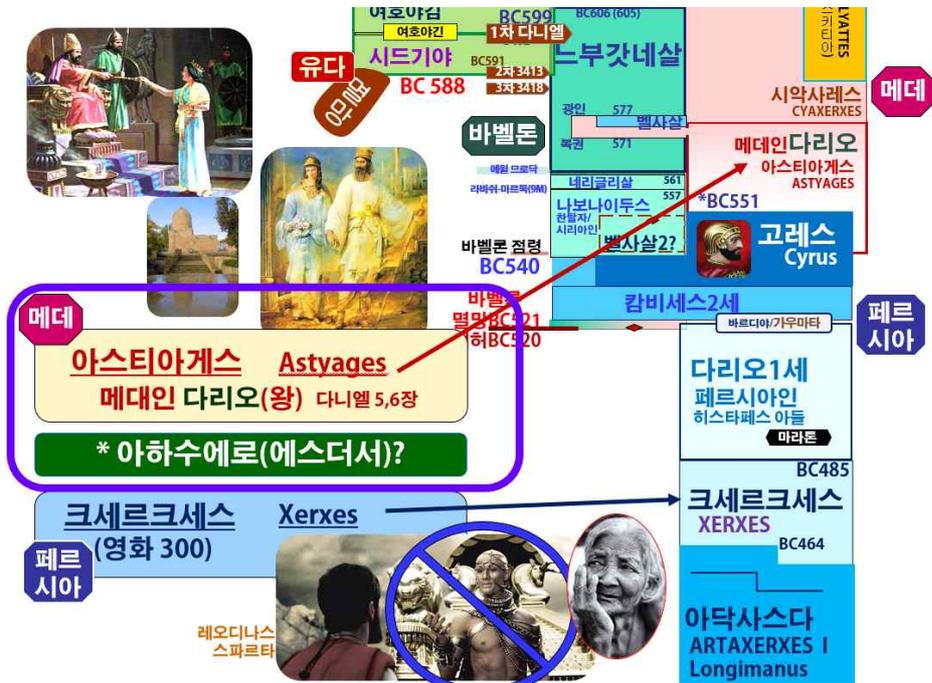
헤로도투스는 그 도시를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페르시아인 여섯명과 만나 동방박사의 반란에 대해 논의한 장소로도 언급하고 있다.¹⁾ (*헤로도투스* III.70-71).

D. 에스더서의 세부사항이 아스티아게스의 지배와 일치한다

에스더서의 놀라운 디테일은 그리스 역사를 통해 아스티아게스에 대해 알려진 것과 히브리 문학에서 미디어사람 다리오에 대해 알려진 것에 대해 놀랄만한 방식으로 일치한다.

1. 아스티아게스 3년

수산에서의 연회는 180일동안 계속되었고 아하수에로(아스티아게스) 3년에 일어났다. 이것은 기원전 573년이었다. 그 잔치는 그가 최근에 세계 정부를 얻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주어졌는지도 모른다(에스더 1:1).



2.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왕비 와스디는 왕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에스더 1:11). 요세푸스는 그 이유나 와스디의 거절과 왕이 그녀와 왜 이혼해야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왕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모든 다른 여자들을 능가하는 그 여인을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잔치에 오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방인에게 아내를 보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법도를 존중하여 왕에게 가지 않았다. 그는 종종 내시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몹시 짜증을 낼 때까지 자리를 비우고 오기를 거부하여 흥을 깨뜨리고 일어나 율법을 해석하는 일꾼 사람을 불러다가 아내를 고발하고 그 여자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의 잔치에 종종 불려나올 때 그에게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그녀에 반하여 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인 무무간이라는 자가 이러한 모욕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로 공공 앓고 있는 모든 페르시아인들에게 있으며,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경멸을 당해야 한다면, 그들의 아내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비에게 그런 오만의 본보기가 있다면, 그들의 남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혐오를 범한 그녀를 엄한 태도로 처벌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왕비에 대해 판결내린 것을 여러 민족에게 공표 하라고 권하였다. 그리하여 해결책은 와스디를 멀리하고 다른 여자에게 지위를 내리는 것이었다, (*유대*

고대사 XI.vi.1.)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이 일단 포고령이 된 이상 되돌릴 수 없고, 왕 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다니엘 6에서 볼 수 있다. 메디아사람 다리오에게 다니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그의 포고령을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아스티아게스 7년

에스더는 아스티아게스 7년(기원전 568년)에 그의 아내가 된다. 이는 에스더 2:15-16에 명시되어 있다.²⁾ 에스더는 기원전 599년 여고냐 시대에 모르드개와 함께 느부갓네살에 의해 추방당한 것으로 보인다.³⁾(에스더 2:5-7) 이 두가지 진술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에스더가 추방 당시(기원전 599년)에 아기였다면, 기원전 568년, 아하수에로 7년에 그녀는 30세 전후였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추방될 당시에 열 살이었다면, 그가 에스더를 그의 새 여왕으로 맞았을 때, 그녀는 69살이 되었을 것이다. 아스티아게스는 그가 메디아를 24년간 통치한 후인 기원전 551년 고레스 대왕에 의해 퇴위되었는데, 에스더는 약 50세였다. 그 후 11년 동안 아스티아게스는 그가 죽을 때까지 바빌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스티아게스는 35년간의 통치 끝에 그의 통치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메디아인들은 아스티아게스의 잔혹함 때문에 페르시아인들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아스티아게스의 시대에, 고레스와 페르시아인들이 메디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이 때부터 아시아를 지배했다. 아스티아게스에 대해서는 고레스가 더 이상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아스티아게스가 죽을 때까지 그의 집에 붙잡아 두었다(*헤로도투스* I.130).

만일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들 중 아무 왕에게나 배속된다면(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듯) 그녀는 매력적이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을 것 같다. 흔히 생각하듯 그녀가 크세르크세스의 여왕이었다면 에스더가 추방당시 아기라고 가정했을 때 크세르크세스 7년(기원전 478년)에 적어도 그녀는 121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스더를 아스티아게스 시대와 연관짓는 두가지 증거가 있다. 이 두가지 요인은 1) 그녀의 나이, 그리고 2)부림의 날짜이다. 에스더의 나이와 부림절의 날짜는 페르시아의 군주들과 비교될 것이다. 따라서 에스더는 아스티아게스 7년(기원전 568년)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은 다음의 페르시아 군주들을 에스더서에서의 아하수에로로 제안하고 있다. — 1) 캄비세스, 2)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 3)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4) 아닥사스다 룡기마누스.

a. 아하수에로로서 캄비세스와의 비교 (524 B.C.)

예전의 통역사들은 캄비세스를 에스라 4:6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연관지었다. 이 연관성은 또한 그가 에스더서의 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다.

고레스 대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캄비세스(기원전 531년 - 기원전 523년) 휘하에서 페르시아의 통치는 이집트에까지 이르렀다. 캄비세스는 기원전 526년 멤피스를 함락시켰는데, 이때 아르나시스와 그의 아들 프삼티크 2세는 페르시아 군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이집트 통치의 시작을 알렸다. 이집트에서 승리한 후, 캄비세스는 고향에서 반란에 대해 배웠다. 그는 스메르디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장악했다는 말을 들었다. 캄비세스는 그의 측근들이 이런 종류의 폭동을 막기 위해 스메르디스(바르디아라고도 알려져 있다)를 죽였기 때문에 스메르디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메르디스(Pseudo-Smerdis)라고 주장한 메디아사람 Gaumate는 정말로 반란을 주도했었다. 캄비세스는 Gaumate 상대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 그는 기원전 523년



카르멜산 근처에서 죽었는데, 일부 학자들이 제시하듯 자살에 의한 혹은 헤로도투스가 단언했듯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III.64).

그의 이집트 작전은 그의 통치 일곱 번째 해(기원전 524년)에 있었던 에스더와의 결혼을 배제할 것이다. 만약 에스더가 추방 당시에 아기였다면 캄비세스 7년에 에스더의 나이는 75세가 될 것이다(기원전 599년 + 75년 = 기원전 524년). 만약 에스더가 추방당했을 때 열 살이었다며, 그녀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에스더의 나이가 이 시기의 그녀와 반대될 것이다. 또한 캄비세스는 12년간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림절의 날짜는 그의 통치기간과 일치할 수 없었다.

b. 아하수에로로서 페르시아인 다리오와의 비교(514 B.C.)

캄비세스의 마지막 날을 표시하고 있는 혼란의 시기는 다리오 히스타페스(기원전 521년 - 기원전 485년)가 모든 반대를 내려놓고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하나가 되면서 끝이 났다. 고레스는 관대한 정책으로 통치하고자 했지만 다리오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 2년 후에 다리오는 대부분의 제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다.4) 그는 수사를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세우고, 그곳에 궁전을 세웠다(기원전 521년).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에 걸쳐 복종할 법령을 만들었다(기원전 520년 경).

기원전 519년-기원전 518년의 겨울 동안 다리오는 이집트의 통치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이집트 왕의 칭호를 주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집트에서 인더스 강 동쪽의 인디아까지 회복시켰다. 다리오는 유럽 정벌에 착수하여 트라키아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를 진압했지만 마라톤에서의 패배(기원전 490년)로 심각한 차질이 증명되어 다리오 1세가 가장 구하고자 했던 상을 빼앗겼다.

만약 페르시아사람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였다면 통치 3년 째에 제국을 통합하고 이집트를 다시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의 나이는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그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리오 1세 7년은 기원전 514년이다. 만약 그녀가 기원전 599년 추방 때 아기였다면 이 때 그녀는 85세가 될 것이다. 에스더는 이 나이에 미인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c. 아하수에로로서 크세르크세스와의 비교 (478 B.C.)

아마도 오늘날 가장 흔히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라는 것이다.

크세르크세스 1세(기원전 485년 - 기원전 464년)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와 고레스의 딸인 아토사의 맏아들이었다. 재위 초기에 이집트에서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그 후 그리스 침략을 준비하였다. 그 사건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용감한 스파르타인들은 테르모필레에서 패배했고(기원전 480년) 아테네 자체는 잠령당하여 약탈당하고 불태워졌다. 그러나 살라미스에서는 페르시아 국왕이 함대를 잃고 전세가 역전되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군대 지휘권을 장군 마르도니우스에게 넘겨주고 아시아로 돌아갔다. 마르도니우스는 마르도니우스는 그리스인들과 싸우는 데 있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없었고,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호위병 중 한 명에게 살해당했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크세르크세스 1세는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⁵⁾

헤로도투스 VII.61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라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반대가 있는데,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는 Otanes라는 페르시아인의 딸인 아메트리스로 이름붙여졌다.⁶⁾ 그리스의 역사학자는 그녀가 크세르크세스의 연인인 Artaynta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불구로 만들었으며⁷⁾ (헤로도투스 IX.112) 한번은 지하세계의 신에게 감사제물로 14명의 고귀한 페르시아 청년들을 산채로 묻게 했다고 말한다(헤로도투스 VIII.114).⁸⁾ Amestris의 페르시아 태생과 그녀의 가학적인 잔혹성은 그녀가 성서 속 에스더의 등장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한다.

헤로도투스가 인용한 연회는⁹⁾ 아마도 크세르크세스 3년(헤로도투스 VII.8)에 일어났을 수 있지만 그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 그리스에 대한 원정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다(헤로도투스 VII.20); 이는 그의 통치 7년(기원전 478년)에 그가 수사에 있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4년이었고 그런 협의를 목적으로 반년 동안의 연회가 열렸다.¹⁰⁾ 따라서 크세르크세스의 연대기는 에스더서의 틀에 들어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입장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에스더와 헤로도투스의 Amestris, 즉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동일시 되어있는 것이 있다. Amestris는 무자비하며 그녀의 아버지 Otanes를 통해 페르시아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나이 때문에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에스더 2:5-6을 재해석해야 한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글리슨 L. 아처, Jr.는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의 시간대에 맞을 수 있으려면 위의 구절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아처는 다음과 같이 쓴다.

에스더 2:5-6에 근거하여 일부 비평가들은 모르드개가 597년 여호야긴의 추방에 의해 옮겨졌고 아직 크세르크세스의 통치기간(기원전 485년-465년)에 매우 많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가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크세르크세스를 느부갓네살 왕의 가까운 후계자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추론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즉 6절에서 모르드개가 아닌 그의 증조부 기스라는 상대대명사의 진짜 선행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 여호야긴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기스라면 모르드개의 시대에 이르러서 597년에서 483년 사이의 적절한 간격 동안 3대가 경과했을 것이다.¹¹⁾

분명 아처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히브리 문헌이 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히브리학자라면 누구나 에스더 2:6의 사람이 기스를 가리킨다면 에스더 이야기 2:7의 그도 기스를 가리켜야 한다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하닷사 즉 에스더를 양육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졌을 것이다. 모르드개만이 에스더의 2:6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히브리 원문을 바꾸지 않으면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에스더의 나이는 그녀가 크세르크세스의 여왕이 되기에는 너무 멀었다. 크세르크세스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관할구들을 잃기 시작했다(*헤로도투스* VII.1-2)

d. 아하수에로로서 아닥사스다와의 비교(457 B.C.)

아닥사스다 로니마누스(기원전 464년 - 기원전 423년)는 크세르크세스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가 침실에서 살해당했을 당시 페르시아의 왕위에 올랐다. 제국은 아닥사스다 1세의 치세에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꽤 성공했지만, 그리스인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것은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더 뚜렷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약점이었다. 페르시아 권력의 쇠퇴는 그의 통치에서 비롯된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아닥사스다 1세를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라고 해석하였다.

크세르크세스가 죽은 후 왕국은 그리스인들이 아닥사스다라고 불렀던 그의 아들 고레스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인들을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 민족 전체가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선언해야 할 사건은, 애초에 이 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역시 왕족이었던 유대인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에 관련이 되었는지... *유대고대사* XI.vi.1.

요세푸스는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아닥사스다'라고 쓰여 있는 70인역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처럼 이집트어 'Pharaoh'와 비슷한 쓰임새로, '왕'이라는 의미로 70인역에서 쓰이는 것 같다. 페르시아어로 아닥사스다를 뜻하는 *Artakshathra*는 'Arta의 왕국'을 의미한다.

만약 추방당시 에스더가 아기였다면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7년(기원전 457년)에 그녀는 142살의 나이로, 분명 미인대회에 나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고고학적 자료는 이 책의 실제 역사성을 어느정도 입증해주었다. 확실히 에스더서의 저자(모르드개, 유대의 전통에 따라)는 메대-페르시아 왕국의 행정,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율법, 특히 수산 궁의 건설에 대해 알고 있다. '수산 궁'(에스더 1:2)은 엘람의 도시 수사의 아크로폴리스를 지칭하는 발굴로 현재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곳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의 화려한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라 프라이스는 그의 작품인 *기념비와 구약성서*에서 구약성서에 기술된 어떠한 사건도 없으며, 그 구조적 환경은 실제 발굴에서 '수산 궁'과 같이 생생하고 적절하게 복원될 수 있다고 말한다.¹²⁾ 프랑스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이 궁전의 유적이 발굴되었고, 에스더서에 상정된 구조와 함께 그 지상 계획에 완벽하게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와스디와 에스더(별star, 페르시아어 *Stareh*로부터)라는 이름은 현대의 메대-페르시아어 출처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두 이름 모두 만족스러운 페르시아 어원을 가지고 있다.

모르드개라는 이름은 바빌로니아어 이름인 *Mardukai*으로, 후기 바빌로니아의 비문에서 빈번히 등장하며, 신 *Marduk*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한다. 모르드개는 아마 다니엘과 세명의 히브리 아이들처럼 이름이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 에스더로 이름이 바뀐 하닷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이 이름은 바빌로니아의 여신 '이슈타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바빌로니아식 이름의 기원은 메대-페르시아의 부흥기의 더 빠른 날짜를 에스더에게 제시할 것이다.

1) 헤로도투스는 다음과 같이 수사를 언급한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수사에 이르렀는데, 그 중 그의 아버지는 대리인이었으며 그가 오는 도중 페르시아인 여섯 명이 다리오를 그들의 동지로 만들키로 결심했다." *헤로도투스* III. 70-71.

- 2) 다음은 아하수에로가 에스터를 자신의 새로운 여왕으로 받아들이는 성서의 내용이다.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 에스더 2:15-16
- 3) 에스더 2:5-7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추방과 사촌으로서의 그들 관계를 묘사한 성경 구절이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맥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 4) 페르시아인 다리오는 처음에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행동했다. 그것은 관할 지역의 분리된 애국심 때문에 사방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방의 지도자들은 메디아, 엘람, 바빌론, 이집트 심지어 페르시아에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 다리오는 충직한 장군들을 보내 반란군을 진압함으로써 각 반란을 막았다.
- 5) 크세르크세스의 제국은 주로 새로운 세금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크세르크세스는 신하들의 충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다리오만큼의 관심은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사행동에 심각한 판단 착오를 범했다. 그는 이집트 제사장들에게 신전 보물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을 화나게 했다. 그는 아테네를 불태웠고 그리스 도시에서 그가 선언했는지도 모르는 어떠한 지원도 잃었다. 그는 바빌론의 성전을 파괴하고 Marduk의 황금상을 녹이도록 명령했다.
- 6) 헤로도투스는 크세르크세스의 여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제시한다. "그들의 지휘관은 오타네스였다. 오타네스는 크세르크세스의 부인의 아버지이자 Amestris의 아들이다." *헤로도투스* VII.61.
- 7) 헤로도투스는 Amestrix와 에스더가 동일하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녀의 잔혹성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크세르크세스가 그의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Amestris가 크세르크세스의 호위병을 불려다가 Masistes의 아내를 아주 잔인하게 이용하였다. 그녀는 그 여자의 가슴을 잘라 개들에게 던지고 코와 귀와 입술도 마찬가지로 개에게, 그리고 혀를 잘라 그녀의 집으로 보내어 잔인하게 이용했다." *헤로도투스* IX. 112.
- 8) 또한 크세르크세스의 아내인 Amestris의 잔혹성은 헤로도투스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 의해 나타난다. "산 채로 묻히는 것은 페르시아의 관습이다. 나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내 Amestris가 노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설적인 하계의 신에게 감사 제물로써 유명한 페르시아인의 아들 열 네명을 묻었다고 들었다." *헤로도투스* VII. 114.
- 9) 헤로도투스가 인용한 크세르크세스의 연회(VII. 8-11)에는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모였다. 연회에서 왕은 아테네인들이 다리오 1세에게 한 일에 대한 복수심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아테네인들을 벌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한다.
 "이집트 정복 후 이제 아테네에 대한 원정을 손에 넣기 위해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인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의 모임을 열었는데, 그는 그들의 의견을 알고 그들 모두 앞에 자신의 의지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소집되었다. 아테네인들이 내 페르시아인들과 내 아버지에게 한 짓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해 헬레스폰트에 다리를 놓아 내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거쳐 헬라스로 가고자 한다. 이집트를 정복한 지 고박 4년 동안 그는 host를 갖추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5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수많은 군중의 힘으로 그의 행군을 시작했다." *헤로도투스* VII. 8, 20.
- 10) 글을 쓴 C. F. Keil의 진술을 비교해보라.
 "왕이 반년 내내 왕국의 고위귀족들을 수사로 모은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현재 책의 특별한 설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도투스 VII. 8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크세르크세스가 이집트를 다시 정복한 후 그리스에 대한 원정에 관해 상의하기 위해 수사로 왕국의 우두머리들을 소환했다는 것은 에스더서에 언급된 왕자와 귀족들의 집회가 180일간 수사에서 열렸다는 것은 명백하다." C.F. Keil,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서 논평," *구약성서 논평*, Sophia Taylor 번역(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pp. 324-325.
- 11) 클리슨 L. 아처, Jr., *구약성서 개론 연구* (시카고 Moody Press, 19, pp. 419-420.
- 12) Ira Maurice price, Ovid R. Sellers, 그리고 E. Leslie Carlson, *기념비와 구약성서: 성서 속 근동에서의 빛*(시카고 The Judson Press, 1958), p. 408.